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2화 :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준은 몇 번이고 눈을 깜빡거렸다. 눅눅한 바닥의 느낌이 생경해 자꾸만 새끼손가락이 움찔거렸다. 까슬까슬한 지푸라기라니,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마신 술이 잘 못 된 모양이었다.

분명, 출동 나가는 꿈을 꿔는데... 생생한 꿈자리에 이준은 진저리가 났다. 하다하다 꿈에서도 일을 하는 모습이라니, 실로 기가 막혔다.

‘아오, 대가리야.’

이준은 온통 노란 빛깔로 뒤덮인 방안을 멍하니 응시했다. 가본 적은 없으나 황토를 바른 벽이 꼭 찜질방 같았다. 덥고 습하지 않은 걸로 봐서 찜질방은 일단 패스.

‘뭐야, 도대체?’

이상한 장소였다.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 코끝에 닿는 향기마저 제 방과 달랐다. 어디 노숙자 쉼터라도 온 것일까.

이준은 무거운 어깨를 비틀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어보자, 웬 천이 휘감겨 있었다.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만가만 얼굴을 더듬자, 콧대부터 광대뼈까지 부은 게 만져졌다.

‘빌어먹을. 술 먹다가 머리라도 박았나? 분명 집에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해 나갔다. 창호지를 바른 문은 한눈에 봐도 허접해 보였다. 발로 살짝만 걸어차도 문짝이 날아갈 것 같았다.

거기다 무슨 사극 코스프레를 하려는 건지 등잔위에 노란 불씨가 위태롭게도 어른 거렸다. 돈 주고도 사기 힘들만큼 낡아빠진 모습이었다.

이준은 잼싸게 천장을 응시했다.

뭐지, 진짜? 천장에는 형광등은커녕 울퉁불퉁한 서까래가 일자로 쭉 뻗어져 있었다. 노숙자 쉼터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른 이준은 희미한 진흙냄새가 배어나는 이불을 옆으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바깥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이준은 잽싸게 문간 옆에 기대고 서서 바깥 사정을 살피려 귀를 기울였다.

“부상자들은 좀 어떤가?”

“심려 마십시오. 대가리 깨진 넷만 제외하면 비교적 가볍습니다요.”

대가리 깨진 넷? 나도 그중 하나인가? 이준은 자신의 머리를 더듬으며 계속해서 대화를 엿들었다.

“현세는 좀 어떤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의원이 약을 달이고 있는 줄로 압니다. 헤민서 출신이라니 실력은 꽤 괜찮을 겁니다.”

“깨어나거든 내게 바로 알려라.”

“예, 두령.”

이후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이준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는 예감이 들었다. 드라마 촬영이니 뭐니 헛짓거리가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꿈이라고 치부해 버리려 해도 분포된 감각 하나하나가 몹시 예민하게 살아있었다.

‘두령, 현세, 한양의 헤민서... 헤민서?!’

대략 십년 전쯤 심심풀이로 틀어놓았던 사극드라마가 떠올랐다. 머리에 무슨 커다란 판때기를 올려두고 의녀니, 장금이니 했던 바로 그 장면!

이준의 입꼬리가 뒤틀리면서 괴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무슨 드라마 촬영지가 아니라 아예 드라마 속에 들어온 상황 같았다. 거기다 바깥 사내들의 음성이 급박한 것으로 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만은 확실해보였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씨오! 이준의 어깨가 송어마냥 펄떡 튀어 올랐다. 그는 은폐와 엄폐로 다져진 정신력으로 잽싸게 이불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지끈거리는 머리통과 결림이 한창인 어깻죽지가 서로 죽겠다며 아우성을 쳤다. 이준은 육신거리는 고통을 가까스로 견디며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이윽고 빼거덕 빼거덕, 경첩소리가 나면서 얼음장같은 바람과 함께 사박사박 발소리가 났다.

‘의사야? 의원? 뭐야, 빌어먹을!’

이준은 미친 듯이 널뛰는 심장박동을 의식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죽은 듯이 누워있는데도 가슴께에서 이것 좀 보라며 북소리를 냈다. 다년간 경험으로 다져놓은 ‘평정심 가지기’는 개뿔, 전부 무용지물이었다.

문득 이준은 제가 북한에 잡혀온 건 아닐까, 새로운 의문이 샘솟았다. 그러자 갈빗대를 뚫고 나올 새라 북치기가 시작되었다.

‘진정해, 병신아!’

문을 열 때 스며든 바람으로 미루어보아 더럽게 추운 날씨임이 분명했지만, 이준의 미간에는 땀방울이 촘촘히 맺혔다.

발소리로 가늠해보건대, 두 사람이었다. 그 중 굼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선땡을 쳤다.

“상태는 좀 어떤가?”

“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은 속으로 소스라쳤다. 모르긴 몰라도 저 ‘헤민서 출신 의원’이라는 작자는 여자가 분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쪽 건너편 말씨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럼 진짜 무슨 조선시대라도 되는 거야? 이준은 찌푸려지는 미간을 애써 당기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타임슬립 그딴 걸 한다고,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무슨 시간여행! 지랄!’

이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속으로 뇌까린 욕설만 수백 가지는 되었다. 동서양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거친 말에도 표정만큼은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손 의원, 이 녀석 식은땀을 무진장 흘리는데, 괜찮은 겁니까?”

“맥이 불안정합니다. 시침을 준비해주세요.”

이준은 시침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눈치 없는 그의 뇌는 다른 쪽을 건드리고 있었다.

가령, 조선은 남녀차별이 심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자가 의원이라니!? 라든가, 생각보다 개방적이잖아? 따위의 생각을 했다.

이준은 죽은 사람 마냥 시치미를 떼고 맥을 짚어대는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딱

히 여자에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도 남자였다. 거기다 사내 중에 사내들만 간다는 경찰특공대의 에이스가 아니던가!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였다. 엄마가 죽고 난 후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여성의 손길은 약간 낯설면서도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세심하게 이준의 머리를 살펴보며 무언가를 기록하고, 한편으론 침음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이준은 살짝 실눈을 뜨고 그녀의 자태를 훑어 올라갔다.

무채색에 가까운 치마위로 단단히 매어놓은 고름이 유독 새침해 보였다. 단정하게 땀아 올린 땡기머리 위로는 상아색 무명천이 감겨 있었다.

흐릿한 시야 사정으로 한참을 더듬거렸지만 그녀의 외모가 무척 단정하고 곱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모태 솔로 인생을 가엾게 여기고 날 이리로 보낸 건가? 그렇다고 조선시대 의사 여친이라니. 설정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내 중에 사내, 이준은 그녀가 꺼내든 침을 보자마자 잼싸게 상체를 일으켰다. 사격과 훈련으로 중무장한 그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주삿바늘이었다.

문신 하나쯤은 흔히 가지고 있는 대학 동기들과는 달리 이준은 그런 것에 질색했다. 각종 무도 대회를 휩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은 의외로 맷집이 약했다. 거의 맞아보질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가뜩이나 주삿바늘도 싫은데 침이라고 뭐가 다를까.

“이보세요! 그걸로 뭘 어찌시게요?”

이준은 손모양이 정확히 삼각을 이루며 침을 쥐고 있는 ‘조선 여의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화들짝 놀란 그녀는 저도 모르게 침을 떨어뜨렸다.

옆자리에 있던 중년 아저씨도 놀라기는 매한가지 같았다.

“현세야! 이 녀석아! 이제 정신이 든 거여?”

이준의 어깨를 붙든 아저씨는 거의 울듯 말듯 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슨, 백설공주도 아니고... 기껏 일어난 것 가지고 호들갑일까.

이준은 미간을 구기며 대답했다.

“저기요, 조상님들. 정신없으신 건 알겠는데 저는 현세가 아니라 이준입니다, 정이준.”

사색이 된 중년의 남자는 잽싸게 고개를 돌려 여자를 보았다. 그 눈빛에 '재 좀 어떻게 해보라'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다.

“맞은 부위에 어혈이 뭉친 것 같습니다.”

중년 아재의 얼굴이 석상처럼 굳어졌다. 이준은 사람의 얼굴이 굳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세삼 놀랐다.

여자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깨어났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잃어버린 기억은 차츰 돌아 올 거예요. 밖에서 탕약을 준비하고 있으니 심려 마세요.”

젠장. 이젠 뭘 어떡한다? 갑작스레 낯선 곳에서 깨어난 터라 돌아가는 사정을 제대로 알 턱이 없었다. 더군다나 평생 이곳에 갇혀 사는 것은 더더욱 사양이었다.

토르에게 줄 '멈머츄르'는 아직 반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이준의 표정이 초단위로 썩어가자, 중년 아저씨가 손을 덥석 잡았다.

“현세 네 덕분에 조가 놈을 쫓아낼 수 있었구먼. 그리 큰 공을 세웠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해야 쓰겠어?! 속히 침도 맞고 탕약도 들어라, 알겠냐? 시방 나는 두령께 소식을 전하고 와야겠다.”

중년의 아재는 이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문간을 넘어서 나가버렸다. 이준은 그저 멍하니 찬바람이 땀, 부는 바깥을 바라보았다.

조가 놈은 대체 누구지? 아무래도 이 껍데기의 주인이 그 놈을 어떻게든 제거한 모양이었다. 제거라면 이준도 깨나 자신있어하는 분야였다.

이준은 홀로 남은 여자를 보며 물음표를 던졌다.

“조가 놈이 누군데요? 제가 그 사람을 뭐... 죽였어요?”

여자는 약간 놀란 눈으로 이준의 얼굴을 살폈다. 뭐라도 물었냐? 이 동네에 딱히 거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현생보다는 좀 잘난 얼굴을 선사 해주길!

현실의 이준은 경찰 특공대답지 않게 하얗고 곱상한 얼굴이어서 첫인상에서부터 한수 접고 들어가는 패널티 가득한 면상의 소유자였다.

이윽고 여자가 대답했다. 음성이 하도 가냘파서 몸을 자꾸 그쪽으로 기울여야만 했

다. 절대, 절대로! 사심은 없었다.

“이곳 고부 군수 조병갑이에요.”

이준은 세삼 놀랐다. 그가 놀란 이유는 조병갑이라는 이름보다 군수라는 명칭 때문이었다.

“조상님들 시대에도 군수가 있었군요.”

여자는 피식, 웃으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 군수라는 작자가 사람들을 어찌나 쥐어짖는지, 굶어죽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차라리 화적 때가 되는 게 나았을 정도로요. 그냥 길만 걸어가도 상납금, 상납금... 그래서 결국 두령이 나서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신이 관아의 이중 고나폴 노릇을 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점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개된 상황을 가늠해보았다. ‘이중 고나폴 노릇’이라면 지금의 언더커버를 말하는 건가?

이 몸의 주인역시 저처럼 비범한 실력자라고 생각하니 이준은 약간의 만족감을 느꼈다.

양반집 자제나 거상의 아들이 아닌 것이 조금 애석했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 팔뚝을 만져보니 운동도 깨나 한 편 같았다.

이준이 이래저래 감상에 빠져있을 동안 여자는 가지런히 개킨 침꾸러미를 펼쳤다.

“제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준의 얼굴이 흠빛으로 뒤덮였다.